

하루를 시작하며



김문정 시인

준비는 끝났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단 단락 해야겠다. 기대와 걱정에 떨린다. 미처 놓친 일들은 가면서 정해야겠고 어떤 것들은 이미 정했지만 바꿔야 할 거다. 지난 연말쯤 시작된 팔꿈치통증은 빗자루를 못 들게 하더니 급기야 젓가락, 가위질도 서툴게 했다. 팔꿈치가 아플 뿐인데 세상 모든 게 내 맘 같지 않다. 오래 해온 밥벌이는 지겨워졌고 시들해졌고, 힘에 부쳤다. 새로운 일을 찾아야했다. 옥상옥이 될까 두렵고 대부분이 말렸지만 감행하기로 한다. 어마어마한 살림을 옮기고 치우고 버렸다. 완전히 비워낸 후 다시 채

괜찮다, 내 인생

워 넣었다. 내일이면 시작이다. 꼬박 석 달 걸려 이제 출발선 앞에 선다. 신발 끈은 새로 묶고 몇 가지 어수선한 단상을 풀어 놓는다.

끝없이 배워야한다. 세상천지 모르는 것투성이이다. 누구나 '뽀'으로 모신다. 배우는 데 나이 없다. 나이 들은 새로운 것에 매우 서툴기도 하지만 먹은 밥그릇 수가 거저는 아니어서 쉽게 되기도 한다. 반백을 살았으니 나이는 충분히 많고 지혜롭게 젊은이의 말을 들어라. 어쩌면 이미 나도 꼰대다.

누구나 알만큼은 안다. 그래서 다 선생이다. 새겨들고 나의 길을 가라. 모든 이는 자기 틀 안에서 바라보고 제 세상 속에 산다. 지대한 관심과 참견은 잠시고 남의 일은 곧 잊는다. 나도 그렇다. 자신감이 밥 먹여준다. 실패 많은 나는 늘 최악을 떠올리며 최선을 잊어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어쩌면 꿈만 큼 높게, 가까이 비상하는 것일지도 모

른다. 자꾸 주그러든다면 하고 또 다시 하라. 할 수 없다. 잘 될 때까지다.

줄여서 살고 가능하면 버려라. 삶이 그리 단순하지 않아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다. 버리지 못하고 다시 쓰러라 하지만 대체로 잊힌다. 간혹 쓰이고 그저 쓰레기다.

함께라면 혼자 서둘러 빨리 가지마라. 달려보았자 먼저 가 총총거리며 기다려야 한다. 협업은 연관된 각자의 일정과 조정되어야만 진행된다. 때로 내 생각처럼 되지 않지만 생각지도 못한 상상 이상의 것이 펼쳐진다.

마구 쓸 수 있는 돈은 즐겁다. 천 냥마트는 적은 돈으로 주변을 풍요롭게 한다. 그렇다 해도 어떤 것은 비싼 값을 지불하고 제대로 좋은 것을 사야 한다. 빛은 잠시 빛을 내지만 허망하다. 써 버린 만큼 채워놓아야 한다면 실컷 쓸 일 아니다.

새 것은 곧 헌 것이 된다. 새 것은

재대로 예쁘고 낡은 것은 빛바랜 대로 아름답다. 삶도 그러하다. 쓸고 닦아라.

높은 데 오르는 것은 무섭지만 디딤판이 튼튼하면 믿고 버틸 수 있다. 웅이는 단단하다. 무리해 박으려면 자칫 못이 구부러진다. 가능하면 빗겨 가야한다.

아무도 앞일을 모른다. 몰라서 좋기로 하자. 저마다 그런대로 '해피엔딩'이다.

글 쓰는 틈틈이 길고양이 밥을 챙긴다. 무릎으로 땅을 쓸면서 뒷발을 일군다. 당시 혼자 얼마나 먹었냐고 이웃에 나눠주신다. 농사일 갖가지는 없는 뒷밭 가꾸기였을지 모르나 노구를 이끌고 하는 일은 송고했다. 박경리 선생님 생전이야기다. 움직여질 때까지는 소소한 일이라도 하면서 내 입을 책임져야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다. 오래 일하고 싶다. 건강해야겠다. 일할꺼리와 터가 있으니 괜찮다, 내 인생.

사설

사람들 떠나는 구도심, 특단의 대책 필요

제주도내 구도심이 많이 아닙니다. 구도심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생활여건이 좋지 않다는 얘깁니다. 구도심이 살기 좋다면 사람들이 몰려들지 왜 떠나겠습니까. 달리 공동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제주시의 중심이었던 일도동과 건입동 등 구도심의 인구 감소세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5월말 기준 제주 인구는 69만4726명으로 4월(69만4057명)에 비해 669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69만2032명에서 2694명이 늘었습니다. 그중 10월에는 832명, 11월 410명, 12월 225명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389명, 2월 113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이어 3월 746명, 4월에는 777명이 각각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구도심 지역의 인구는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이후 5개월 새 일도동·이도1동·삼도2동·용담동 등 구도심 지역의 인구 유출이 지속됐습니다. 일도2동은 연말 3만4388명에서 5월에는 3만4002

명으로 386명이나 줄었습니다. 건입동은 9610명에서 9419명(-191명), 용담1동은 7527명에서 7360명(-167명), 이도1동은 7851명에서 7703명(-148명)이 감소했습니다. 용담2동은 1만5426명에서 1만5277명(-149명), 삼도2동은 8397명에서 8254명(-143명)이 줄어든 겁니다. 서귀포시 구도심 지역도 다를 바 없습니다. 송산동이 96명 줄어든 것을 비롯해 서흥동 92명, 중앙동 68명 등 구도심의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단순히 구도심의 인구수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월별로 보면 지난해 9월만 해도 1041명으로 1000명을 웃돌았습니다. 그해 10월에는 832명, 11월 410명, 12월 225명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389명, 2월 113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이어 3월 746명, 4월에는 777명이 각각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구도심이 활력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훨씬 뛰어넘는 고도완화 등 특단의 대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도심은 갈수록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열린마당

이웃의 관심이 노인학대를 예방합니다



현정준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교과 노인요양팀장

6월 15일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노인학대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국제연합(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2006년 제정했다. 2017년 정부는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UN이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정한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노인학대의 범주에는 신체적·정서적·언어적 학대뿐만 아니라 유기·방임으로 인한 소외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서귀포시에도 2017년 12월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돼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캠페인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학대가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작년말 기준 서귀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7.87%(3만2394명)로, 노인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는 전국평균 노인인구 비중인 14.76%, 제주시 13.13%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노인인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도 노인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만 서귀포시 노인학대 관련 신고(2018년 324건, 올해 202건)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예방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노인 인권지킴이 활동,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학대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기울일 것이며, 이웃들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드린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대부분 내려달라”

“도청 앞 언로 보장 명소로”

○…현길호 의원이 제주도청 앞을 언로가 보장되는 명소로 만들라고 훈수.

11일 결산 심사가 진행된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좌남수 의원은 김승철 제주도 소통협력정책관에게 “도청 앞 천막이 몇개이나”며 질문한 뒤 농성 단체들의 명칭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지금 언로가 막혀 있다”고 비판.

이러 현 의원은 “어떤 단체가 왔는지도 파악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 안되면 천막촌거리 명소를 만들라. 언로가 보장되는 제주 얼마나 좋냐”고 쓴소리. 표성준기자

세금 부담에 “집값 내려달라”

○…서귀포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하향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이달 15일까지 검증작업을 실시. 검증 대상은 상향 요구 3호와 하

향 요구한 196호로, 한국감정원의 현장조사와 주택소유자 면담을 통해 가격 적정성을 검증 후 부동산 가격경색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6일 조정·공시할 예정.

시 관계자는 “올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하고, 내려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이라며 “하향요구 이유는 세금 부담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물놀이 사망사고 제로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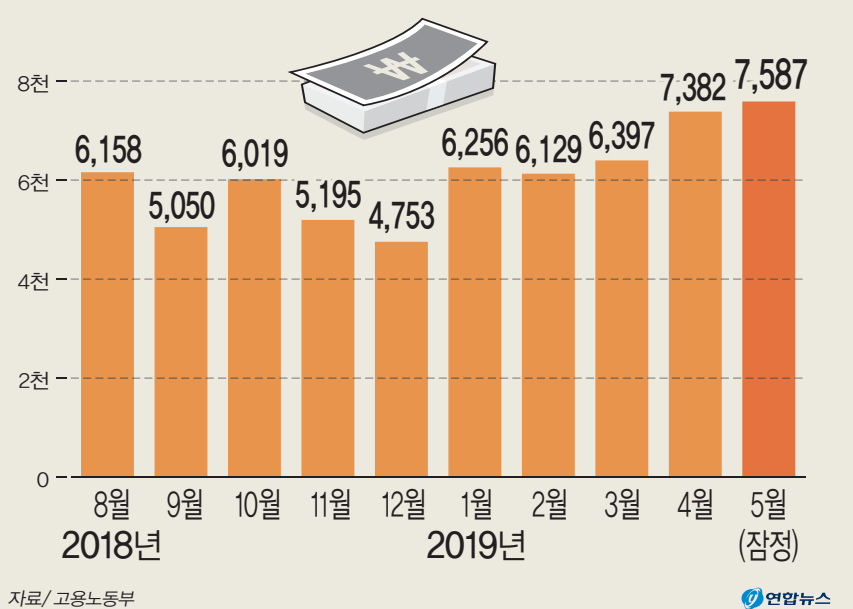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의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여름 휴가철 이전 안전교육을 집중 실시할 예정.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의 학생 물놀이 사망 사고는 2015년 2명, 2016년 1명, 2018년 1명 등 총 4명으로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필요.

도교육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개인능력 배양을 위해 생존수영을 확대 운영함은 물론 수상안전 예방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 오은지기자

그래픽 뉴스

구직급여 지급액 추이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남평문씨 올랐 (향년 9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신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시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19년 6월 12일
아들 김방신 며느리 조인자
방홍 이선화
방희 박정림
방근 방근
딸 김연순 사위 신중섭
영순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대학병원 임상결과 일일 50섭취 식품안전성 입증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 진흥원 판매장 등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사무실 임대
위치 한라일보사 1층 (제주시 서사로 154)
전용면적 175㎡(분할가능)
용도 의원, 사무실, 학원 등 전업종 가능
주차장 완비
문의 064-750-2530

하귀농협장례식장
24시간 무/료/상/담/실/시 24시간/대기
T.798-8800
독립적인 호텔식 분향실 및 접객실
동시주차 500여대의 넓은 주차장
대중교통 270번, 793-1번 이용가능
노형에서 10분 거리
제주시부경찰서에서 노형방향 1.5km지점
상조회에 가입하신 분들에게서도 하귀농협장례식장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명: 방한방(1953. 5. 5생)
취주주소: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로70번길 6-6(오조리)
상기자는 2019년 3월 18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19년 5월 30일 제주지방법원 2019-단272호로 상속관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정산에서 제외됨을 회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로70번길 6-6(오조리)
2019년 6월 12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박운자, 현연실, 현연희, 현연화, 현중순

계분 판매합니다. (배달 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 제주시 한림읍 명사로106-7)